

國立公園指定의 條件

〈중앙일보사설—11월 29일〉

서울 근교에는 名山이 많다. 北漢山, 道峰山, 水落山, 冠岳山 등 서울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산에 올라본 사람이라면 그 경관의 秀麗함과 山勢의 웅장함에 讚嘆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세계의 어느 나라를 보아도 이처럼 아름다운 山을 가까이 두고 있는 首都나 대도시는 없다. 都心에서 가까울뿐 아니라 그다지 높지도 않은 것이 서울 근교 산의 特徵이기도 하다.

北漢山 제일봉인 白雲台가 8백 36m, 道峰山의 자운봉은 7백17m이다.

이처럼 높지않기 때문에 공원으로서, 또는 登山路로서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서울시민의 훌륭한 휴식처가 되어 온 北漢山 일대를 정부가 國立公園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중이라는 보도는 아름다운 景觀을 더 잘 가꾸고 보호하는 계기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다.

정부가 國立公園 외에 道立公園, 郡立公園, 海中公園 등을 지정하는 것은 날로 늘어나는 觀光인구를 효율적으로 수용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때문에 빚어질지도 모를 自然훼손을 방지하자는 데 뜻이 있음은 두말할 것이 없다.

따라서 이런 계획의 成敗는 아름다운 自然을 있는 그대로 保存하면서 觀光資源을 개발해야 한다는 상호對蹠의인 목적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달려있다.

「開發 과 「保存」의 균형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留意할 것은 개발이 지나쳐 自然景觀이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가 국립공원 지정을 檢討중인 北漢山 일대에는 많은 不良住宅이 들어서 있다. 許可를 받은 시설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道峰山의 어느 아름다운 계곡에는 언제부터 私有地가 되었는지 철조망이 쳐져있는 곳도 있다.

國立公園 지정 여부를 떠나서라도 北漢山 일대가 서울시민들의 귀중한 휴식처라는 점에서 不良주택의 집단移住 계획은 서둘러 세워져야 한다.

그리고 산 한가운데에 자리잡고 있는 私有地 역시 서울시가 매입하거나 수용해서 시민들이 기분 좋게 즐길 수 있도록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67년부터 13개의 陸上공원과 2개의 해상공원, 1개의 海岸公園을 지정한 뒤 관광객은 계절을 불문하고 많이 몰리고 있으나 이들을 수용할 시설은 충분히 갖추지 못해 자연 보존 자체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宿泊시설은 둘째치고 화장실이나 쓰레기 처리장 하나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智異山의 天王峰이나 설악산의 大靑峰마저 汚染되어가고 있다.

다른 국립공원에 비해 北漢山 일대에 몰리는 등산객이나 관광객은 매주 수10만명을 헤아릴 것

이므로 각종 附帶시설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한다.

가령 遊園地의 경우 대규모 화장실은 물론 上·下水道 시설도 완벽하게 갖추어야 한다. 登山路에도 지나가는 사람수를 예측해서 거기에 맞는 쓰레기 처리장 등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公園인 이상 慰樂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은 上·下水道, 화장실 등 시설을 갖춘 다음에 짓는 것이 順序일 것이다.

케이블카도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다. 하지만 自然景觀을 해치지 않게 地域성정을 잘해야한다.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것은 몰라도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얼마만가 좋은 自然景觀은 훼손되고 만다.

예컨대, 스위스의 융 트라우엔 케이블카도 있고 山頂엔 건물도 있지만 上·下水 시설은 물론 케이블카도 지하 암벽에 설치, 自然景觀은 결코 해치지 않았다.

國立公園은 우리 세대뿐 아니라 자손만대에 물려줄 귀중한 財産이다. 따라서 이를 개발하는 때는 각계의 의견이 모아져야 하고 특히 전문가들로 구성된 公共자문기구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벌써 1896년 융프라우를 개발한 스위스 사람들의 知慧를 우리는 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雪岳山의 動植物

〈동아일보사설—9월2일〉

국립공원 설악산이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8차 인간과 생물권 계획조정위원회에서 이루어져 이번에 통보를 받은 것이다.

「생물권 보존지역」이란 「유네스코」가 지난 71년 「인간과 생물권 계획」의 하나로 내세운 자연 보존지역에 대한 새로운 개념으로 자원을 자연상태로 보전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다각적으로 추진하자는데 그 뜻을 두고 있다.

따라서 생물권 보존지역에서는 생태학에 관한 연구 및 축적조사와 교육훈련 등이 실시되며 국제 보존지역 네트워크 간에 수집된 과학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생물권 보존지역의 설정기준은 육지 또는 해양 환경중에서 중요한 생물群系를 이루고 있어야 하며 전통적이며 자연적인 조화를 지닌 경관이어야 한다.

81년말 현재 55개국 2백9개 지역이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우리 나라 설악산이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결정된 것이다.

자연경관이 아름다울뿐 아니라 溫帶와 亞熱帶性 동식물이 함께 서식하고 있는 설악산에는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雪嶽조팝나무 등이 自生하고 있는 특수지역인데도 그간 資伐과 밀렵, 불

법 채취 등으로 휘귀 동식물이 멸종 위기에 놓여 있으며 무리한 개발 등으로 사실상 자연경관이 일부 변경 또는 훼손되어 이에 대한 시급한 보전이 심각하게 논의되어 왔었다.

한 예로 설악의 에델바이스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표본을 만들어 파는 바람에 이미 멸종위기에 놓인지 오래 되었고 朱木은 고급 바둑판의 자재로 인기가 높아 지금도 도벌이 저질러지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더우기 관광시즌이 되면 수많은 관광객들이 마구 몰려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고 쓰레기 등을 마구 버려 날로 오염이 심해가고 있다.

지난 봄 우리 나라의 野生動植物, 물고기, 鳥類 등의 실태를 조사했던 한국자연보존협회소속 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멸종 위기에 있는 동식물중 식물이 1백20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鳥類 48종, 민물고기 32종, 포유류 20종, 양서·파충류 13종 등으로 당장 보호를 서두르지 않는다면 멀지 않아 멸종될 것이라고 경고를 한 바 있다.

특히 각종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설악산의 경우 보호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되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며 지금이라도 보존사업만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원형에 가깝게 복구할 수 있으리라고 「유네스코」의 한 관계자도 밝힌바 있다.

따라서 이번 설악산에 대한 「유네스코」의 「국제생물권 보존지역」지정을 계기로 비단 설악산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전국에 걸친 야생동물이나 조류, 민물고기, 파충류에 대한 분포상황을 제대로 조사, 정리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지금까지 자연보호를 내걸고 전국적으로 운동을 벌여 오면서도 빈번히 구호에만 그치고 있을 뿐 야생동식물에 대한 분포도 제대로 조사, 정리되어 있지 못하다. 이 때문에 어떤 동식물이 멸종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안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유네스코」의 결정을 하나의 계기로 삼아 행정당국이 앞장서 생태계 연구조사를 서둘러 주었으면 한다.

保存과 開發의 調和

〈중앙일보사설—9월3일〉

國土를 바르게 보호하고 잘 관

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정부가 國立公園을 비롯해서 道立公園, 郡立公園과 海中公園, 保健休養林, 野鳥保護地區로 새로 지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도 그런 뜻에서일 것이다.

우리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잘 보호하면서 관광, 휴양인구를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마련된 계획이란 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런 계획에는 반드시 상호대차적인 두가지 목적의 원만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다음아닌 「自然保存」과 「觀光開發」의 조화란 것이다.

두말할 여지없이 사람은 自然속에서 살고 있는 존재다. 땅을 밟고 숨을 쉰다는 명확한 사실 외에도 衣食住를 모두 자연에 의존하고 있다.

生存을 위해 자연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그 이용할 자연을 유지, 보호해야 한다는 것도 인간의 책무이다.

이제 「인류는 전 地球의水準에서 오직 혼자서 미래에 직면하게 된 최초의 存在」가 되었다고 로마클럽會長 「아우렐리오·체케이」는 지적한 바도 있다.

地球자원의 보호는 결국 인간의 책임아래 두어지고 있다.

자연자원은 현재 생존하고 있는 世代의 것만이 아니며 미래의 세대들도 누려야 할 하늘의 선물이다.

따라서 自然生態系를 파괴하여 生物의 種을 멸실하는 일은 물론

이고 天惠의 선물인 자연의 아름다움을 손상하는 것도 부당한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자연보존연맹은 개발과 보존을 조화, 양립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20개항에 달하는 원칙을 세우고 이를 각국 정부의 환경정책에 반영하도록 권하고 있다.

어떤 개발이든간에 生物의 種과 그 종의 서식처 또는 생태계는 파괴할 수 없으며 개발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자연의 指統的 利用」에 차질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원칙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벌써 67년부터 국립공원을 설치하여 현재 11개의 陸上공원과 2개의 海上공원, 1개의 海岸공원이 지정돼 있고 이제 月岳山과 小白山이 더 지정될 단계에 있지만 사실에 있어서 그런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가 의문이 되어 있다.

국립공원은 나라의 대표적 자연경관을 자연 그대로 보호함으로써 관광휴양에 공헌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 이후 대부분의 경우 관광객은 물리고 있으나 그를 수용한 시설은 충분치 못하고 그에 따라 自然자체의 보존이 어렵게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충분한 숙박시설은 고사하고 쓰레기 처리장조차 제대로 마련되

지 않아 휴지와 汚物로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예사가 되었다.

물지각한 관광객들은 천연기념물인 植物類조차 觀賞木으로 캐가아가 하면 잡상인들은 끝사나운 여인숙과 점포들로 무질서한 관자촌을 이뤄 아름다운 자연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것은 「자연보호」는 물론 아니려니와 「개발」도 아니다. 이럴바에야 「國立公園」 지정이 무의미하다고 할 밖에 없다.

정부가 일정한 自然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보존과 개발을 철저히 조화시키겠다는 의지를 표한 것이며 또 국민에 대한 약속이 분명하다.

그런만큼 정부가 국립공원의 「보호」와 「개발」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것은 물론이다. 엄격한 계획과 관리능력이 거기엔 필요하다.

자연보호를 위해서 중요한 지역엔 접근을 제한하고 일정지역의 휴양, 관광시설은 충분히 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캠핑, 취사장도 일정지역에 한정하고 그곳에 食水와 쓰레기장이 모두 마련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점에서 최근 발표된 정부의 새로운 國土개발 계획은 매우의욕적이어서 기대되는 바 크지만 그에 앞서 「자연보호」와 「개발」을 조화할 충실한 管理力의 증진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도록 당부하는 바다.